

▶ 전북도의회 5분 발언

“일등 꿀찌 모두가 공동체를 이뤄야”

- 이해숙 “공립대안학교 학생선발권 일임해야”
- 이현숙 “익산 폐석산 환경오염 근본 해결 필요”
- 박재완 “문화전문인력 채용을”
- 최은희 “저상버스 정류소,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 정호윤 “도의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금 대책을”
- 최영규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전북도의회 제36회 임시회 5분자유 발언에서 의원들은 지속 가능한 공립대안학교 변화 촉구, 저상버스 정류소 개선,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학교 석면해체 등을 촉구했다.

5일 최영규(익산4), 정호윤(전주1), 이해숙(전주5), 최인정(군산3), 최은희(비례), 박재완(완주2), 이현숙(비례) 의원이 나섰다.

▲**이해숙 의원** = 공립대안학교를 문제아들의 격리수용소로 인식하고 있는 도 교육청에 대해 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들만이 아닌 공립대안학교과 진정한 의미의 정상적인 대안학교가 되려면 몇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일등부터 꿀찌 모두가



이해숙 의원

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학생선발권을 일임해야 하고 교장과 교사 선발에 있어서 대안교육의 이해 선행, 학부모들의 동반 교육 등이 필요 하다”고 제안했다.

▲**이현숙 의원** = 익산 폐석산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익산 남산면 폐석산 환경오염 사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의 전수조사 참여, 해당 업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단행, 해당지역에 대한 토양보전 대책지역 지정, 민관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마련을 주문했다.



이현숙 의원

▲**박재완 의원** = 전문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문화전문인력 채용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시군별로 1명씩 배치된 문화전문인력이 기껏해야 6개월밖에 근무하지 않는 한시 계약직이 대부분”이라며 “효과적인 지역 문화 자치 활성화와 문화여가생활 전달 체계 구축은 기대 할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완 의원

박 의원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전북도를 보면서 주도적인 자치행정의 표본인지 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도가 사업추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사업추진과 성과달성에 적극 개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의원** = 장애인 접근성 보장과 누구에게나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저상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을 들여다 보면 높은 보차도 경계석, 명확하지 않은 버스도착안내시스템 화면 등 설계단계에서 2차, 3차 검증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장애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전반에서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희 의원

▲**정호윤 의원** = 전북도의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금 관리 무대책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전북에서 5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충전수수금은 약 7억 4,400만원이 달한다. 또 지난해 8월 17일 가진 간담회에서 잔액 주인 찾기, 미사용 금액 도 공동관리 참여 등이 도출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무엇도 이행되는게 없다. 전북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정호윤 의원

▲**최영규 의원** =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감독 책임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낙찰자 결정기준이 갑자기 바뀌어 1순위가 제외되는 등 최근 석면해체공사 발주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각 학교마다 석면안전관리원이 지정돼 있지만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몇가지 사례만으로도 도교육청이 석면 안전관리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충분히 알수 있다”면서 “학생들과 직원들이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규 의원

남경필-김두관, 모병제 ‘한목소리’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했던 모병제가 내년 대선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되던 모병제 도입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뿐 아니라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까지 수면 위로 끄집어 내면서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 토크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토론회에 참석, 모병제 도입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남지사-김 의원 간 ‘주고받는’ 식의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했다.

토크쇼 사회는 19대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정두언 전 의원이 맡았다.

먼저 말을 꺼낸 남 지사는 강군 육성을 위한 ‘한국형 모병제-코리아 리빌딩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내용을 통해 대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내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재의 인구 추이라면 2025년 인구절벽에 따라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의지에 바탕을 둔 모병제가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내년 대선에서 모병제 이슈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모병제로의 완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 등의 관점에서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징병제로 연간 사회적 비용인 25조9000억~69조원까지 든다는 학계 주장이 있다”면서 “국방비 1% 정도인 3~4조 원이면 모병제를 도입할 수 있다. 병력운용 비용이 27조 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줄어든 예산으로 12~3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사회적 기회비용에 따른 145조 원의 GDP 상승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와 김 의원 모두 모병제 도입 논리로 ▲사교육비 감소, 전력운용비 급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 ▲해군·공군의 정예화 및 군사력 질적 제고 ▲병역 비리와 가혹 행위 근절 등을 제시한 셈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 내내 내걸었다. /뉴스



국회의원 이용호, 정동영, 김관영 등 전북도당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창 C형간염 발생 보도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의 대국민사과와 정정보도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 “질병관리본부는 질병피담유포본부”

순창 C형간염 해프닝 ‘책임자 문책·정정보도·사과 촉구’ 기자회견

질병관리본부가 순창군의 수십년 전 C형간염에 감염되어 그동안 치료를 받아온 환자의 누계를 최근 발생한 환자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확산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책임자 문책 및 정정보도와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역학조사를 허러 가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결과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 언론에 먼저 알린 것은 성과만능주의에 빠진 질병관리본부의 무책임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질병피담유포본부’라고 꼬

집었다.

이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내과를 불발치과로 둔갑시켰으며, 감염내과에 감염 환자가 많은 것을 두고 집단발병의 근원지인 것처럼 매도했다”면서 “심지어 찾기 힘든 오래된 진료기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병원의 C형간염 환자들은 7~80년대 감염된 환자들이 대부분으로 이 병원이 개업한 2006년 이후 줄곧 이곳에서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들이 마치 최근에 감염되어 발생한 것처럼 밝혔다”면서 “C형간염 전문 병원에 C형간염 환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십년전에 감염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와서 역학조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질병관리본부의 해프닝 때문에 순창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해당병원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만큼 질병관리본부의 사과와 책임자문책 및 정정보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엠바고 설정 이후 순창의 해당병원을 방문해 의료인 면담과 소독 및 멸균 절차 등 감염관리 실태조사, 병원 의무기록과 의료기기 구입대장 등을 확보해 C형 간염 집단 발생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순창=이원형 기자

유성엽 “제3지대론 위해 안철수 마음 비워야”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제3지대 정계개편론과 관련, “제3지대론이 의미를 가지려면 안철수 대표께서도 마음을 좀 폭 넓게 가져야 한다”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인생 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인터뷰에서 이같이

이 말한 뒤 “(안 전 대표가) 나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제3지대론도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선후보 결정 방식에 있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는 이런 방식 갖고는 안 된다”며 “정말 정권 교체

진심으로 바라고 원한다면 다들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표도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안철수 전 대표도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통합이든 제3지대론이든 현실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 스스로만을 고집해서는 통합도 어려운 것이고 제3지대론도 힘을 받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뉴스

전북도 선관위 ‘공명이 사랑나눔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330만원 전달

전라북도선관위위원회 봉사단체인 ‘공명이 사랑나눔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5일 도내 불우이웃 30세대 및 시설 2곳에 총 33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공명이 사랑나눔회는 FROM-5운동(나부터, 작은 일부터, 가까운 일부터, 쉬운 일부터, 지금부터)을 통해 소외된 불우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 및 구·시·군선관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봉사단체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성금전달과 배식봉사, 치매노인과 소풍나들이, 사랑의 연탄 나르기 등의 나눔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공명이 사랑나눔회 신윤재 회장은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 향후에도 나눔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김관영, 군산 수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215억 확보

군산 해망동과 소룡동 일대가 수산물 유통과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재탄생한다.

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군산)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망동 수산물종합센터 현대화 사업에 국비 125억 원, 소룡동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신축에 90억 원 등 총 2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간 노후로 인한 미관과 안정성 문제가 이어져 온 해망동 수산물 종합센터가 건평 약 5,500㎡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또한 1977년 준공된 소룡동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역시 신축을 통해 노후 문제와 시설 종류 그리고 규모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냉동·냉장·재빙·저빙 시설 등이 두루 들어서 수산업 관계자들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해망동 수산물시설 현대화 사업은 김관영 의원의 총선 공약으로서 재임 3개월만에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주시의회 문경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문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지난주 탄소산업 육성 전략 강연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직접 탄소산업 중심 현장을 찾았다.

문화경제위원회는 5일 국내 유일 탄소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제탄소연구소를 방문해 기술원 현황 및 탄소산업 주요사업 연구 성과 등을 청취하고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기술원의 탄소제품 전시관을 관람하고 경량 부품 시험 생산동을 방문하여 탄소제품의 생산과정을 직접 둘러봤다.

또한 의원들은 탄소기술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방문해 지역 내 창업 지원 현황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며 탄소산업 육성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은 “지역의 열악한 산업 여건과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탄소산업이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탄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내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에코시티 현장 활동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5일 송천동 에코시티 조성 사업 현장을 찾아 항공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등 현장 점검 활동을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옛 35사단 부지인 전주 호성·송천·전미동 일대 1.99㎢(60만평)에 주거특화 생태도시로 조성하고 있는 에코시티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내년 5월에 끝나는 1단계 사업에는 보상 및 환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문화재 발굴조사, 토양오염 정화 사업, 토목·조경공사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9월 현재 42.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한 데 이어 태풍에 대비해 공사 현장 내 굴착 사면의 붕괴 및 주변 침수 등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주변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장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복환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점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5일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전주시환경사업소(공공하수처리 시설)를 찾아 현장점검 활동에 나섰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험가동 중인 음식물류 자원 회수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등 주요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차질 없는 공사 추진으로 사업이 안전사고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과 해당 부서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의원들은 송천동에 위치한 전주환경사업소를 찾아 시설 운영 현황과 하수처리 공정을 점검하고 이날 말 준공 예정인 사업소 내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설치사업 현황을 확인했다. /김영재 기자